

현대자동차 · 중공업, 현대오일뱅크에 추가출자

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107억원씩을 추가로 출자했다.

현대중공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공매입찰을 통해 현대오일뱅크에 지분의 0.91%인 107억2000만원(223만3938주)을 추가 출자했다고 11월5일 발표했다.

현대자동차도 같은 방식으로 현대오일뱅크 지분의 0.91%인 107억2000만원(223만3937주)을 추가 출자했다.

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 전체 지분의 33.12%를, 현대자동차는 7.24%를 보유하게 됐다.

아랍에미리트 정부 투자회사인 ICIP가 1999년 신주인수 방식으로 현대오일뱅크에 50%의 지분을 투자할 당시 현대가 나머지 50%를 보유하도록 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.

현대는 당초 계약사항에 따라 나머지 50%의 지분을 소유해 왔으나 전체 주식의 1.8%를 보유했던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라 지분이 50%를 약간 밑도는 상황이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11/ 08>